

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원들 SRF 가동 반대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광전노협 349명 설문조사 결과 노조원 97% 답해
“공공기관장 해결 나서야” 94.6%... 재가동 ‘척척산중’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놓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이어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노조원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이하 광전노협)가 27일 발표한 노조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49명 중 97% 이상이 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4.6%는 이전 공공기관장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응답해 향후

SRF 반대투쟁이 이전 기관의 경영진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예상된다.
광전노협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국립전파연구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13개 기관 노조원 34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고형폐기물 사용을 전제로 한 환경 유해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6.8%가 “이전 기관의 경영진이 조합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응답자 10명 중 9명 풀(91%)로 “이전 기관 노동자의 생명에 관심 없는 기관장 협의회는 저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96.8%는 “지역 위정자에 대한 불신임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며 가동 반대 투쟁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98.2%는 “집권당, 야당 지도자 및 관계 부처 장관 면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이 “기관 종사자를 타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임시사택을 타 지역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심지어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을 반대해야 한다”(91.7%), “혁신도시를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92%)는 항목에 대한 찬성률도 90%를 웃돌았다.
장재영 광전노협 의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확인됐다”며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

영진도 SRF 반대 투쟁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SRF 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사업비 2700여억원을 들여 2014년에 착공해 2017년 준공했다. 하지만 준공 3개월 전에 이뤄진 시험가동 때 생활 쓰레기로 만든 SRF연소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대기 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집단 반발 때문에 2년째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사용 연료를 ‘수소 연료전지’ 내지는 ‘LNG 100%’로 전환할 것과 ‘타 지역 쓰레기 연료 반입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공동브랜드 제품 베트남 수출길 오른다

현성오토텍-베트남 HB Tech
100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지역 가전산업 활로를 위해 추진한 광주 공동브랜드(CITY OF PEACE) 제품이 베트남 수출 길에 오른다.
광주시는 27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주 공동브랜드 참여기업인 (주)현성오토텍과 베트남 HB Tech가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베트남 수출상담회에서 (주)현성오토텍과 HB Tech사가 만난 이후 HB Tech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로 계약이 빠르게 진행됐다. HB Tech는 안테나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한국인이 베트남에 세운 중소기업이다.
HB Tech 정명철 대표는 “현성오토텍 제품인 만능조리기의 상품성도 좋지만,

광주에서 제품을 인정하고 함께 한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주)현성오토텍 김창수 대표는 “광주 공동브랜드는 광주시가 인정했다는 의미로 마케팅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됐다”며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및 사후 품질 관리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공동브랜드의 장점이다”고 말했다.
광주 공동브랜드(CITY OF PEACE)는 2016년 대기업 가전 생산라인의 일부 해외 이전에 따라 대기업 의존형 가전산업 생태계를 완제품 생산체제로 전환하고 지역 가전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광주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시는 공동브랜드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광주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제품 개발, 품질 인증, 마케팅까지 관리·지원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6월 1일 ‘허브체험교실’

전남도농업박물관

전남도농업박물관이 라벤더, 로즈마리를 활용한 ‘허브 체험교실’을 연다.
허브 체험교실은 지난 2016년부터 농업테마공원 7025㎡에 향기(허브) 식물원을 조성한 뒤 진행중인 것으로, 허브 젤리향초 만들기, 허브 주물럭 비누 만들기 등을 유료로 체험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다음달 1일 농업박물관 판매동 일대에서 열리며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전화, 박물관 홈페이지(www.jam.go.kr) 등으로 하면 된다.
농업박물관은 또 라벤더와 로즈마리 향기가 가득한 박물관 테마공원 내 향기식물원을 개방,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벤더가 자줏빛 꽃을 피운 장관을 볼 수 있다.
이종주 관장은 “일상에서 벗어나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창덕궁, 한·중 전통정원 특별사진전 개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창덕궁 편전(便殿)인 선정전(宣政殿·보물 제814호) 뒤뜰에서 한·중 전통정원 특별사진전 ‘옛 뜰(庭)을 거닐다’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중국 이허위안. <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

전남도, 동남아에 518만달러 수출계약

전북통조림·도시락김·화장품 등

전남도 동남아시아 시장개척단이 최근 518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성과를 이뤘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지역 식품기업 10개사와 공산품 5개사가 참여, 지난 24일까지 6일간 베트남·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를 돌며 자사 상품 홍보 활동 등을 펼쳤다.
시장개척단은 이 기간 292만 달러 규모의 농수산물 수출계약을 했다. 업체별로 제이에스코리아가 전북통조림 6만 달러어치를 하노이 동양농수산물에 수출하기로 했으며, 맛나푸드는 도시락김 192만 달러어치를 호찌민 아시아스마트

에 팔기로 했다.
기쁨농원은 표고조리미 34만 달러어치를 호찌민 유니트라드조인트에, 에버팜은 배·포도·딸기 50만 달러어치를 호찌민 몬스터 코리아에, 해남구마협동조합은 싱가포르 에베로프르와 10만 달러 규모의 구마 수출계약을 했다. 화장품과 공산품도 226만 달러 수출 계약을 했다.
이밖에도 경향샬은 단열재를, 에이치유원은 반려동물 식품을, 성지에프엔디는 떡볶이를, 영광군수협은 굴비를, 향아식품은 미역·김을 출품해 동남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용섭 시장 광주수영대회 홍보 중국 방문

이용섭 광주시장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와 중국 관람객 유치 등을 위해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방중 기간 이 시장은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격인 귀중원 중국 국가체육총국장을 만나 광주세계수영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중국 선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또 저우쉬홍 중국수영협회장과 수영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양해각서에는 광주시가 중국 선수단의 편의 제공을 위해 대회 기간 중국 선수 전용담뱃수를 지정·운영하고, 중국수영협회는 수영대회를 홍보해 중국 선수와 마스터스 대회 등에 동호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시장은 이번 방문 기간 CCTV, 인민일보 등 중국 유수 언론사 기자 및 북경주재 한국특파원들과 기자간담회도 갖는다. 또 북경시 인민 정부를 방문해 리우웨이 상임부시장 등 고위급 관계자들과 만나 광주시와 북경시 간의 우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수영 강국인 중국의 최정상급 선수들이 광주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8월 5일부터 열리는 마스터스 대회에 지리적으로 유럽 선수 참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중국 수영 동호인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세계적 미디어아트 축제 광주서 열린다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 6월 22~28일 문화전당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축제가 광주에서 열린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미디어아트 분야 최고 권위의 행사인 ‘2019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SEA2019)이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다.
‘2019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은 1988년부터 이어져 온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축제로, 지난 30년간 17개국에서 개최돼 매

년 1000명 이상의 예술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행사다. 광주시는 이탈리아 피렌체와 치열한 경쟁 끝에 2016년 행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후 약 2년 반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 행사는 개최도시 광주의 풀이말인 빛고을에서 영감을 얻은 영원한 빛이라는 의미의 ‘룩스 에테르나(Lux Aeterna)’를 주제로 학술 프로그램, 아트 프로그램,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 세션으로 ▲‘백남준과 한국의 미디어아트’를 주제로 한 세션 ▲도시를 주제로 한 세션 등도 진행된다.
아트 프로그램으로는 전시와 퍼포먼스, 아티스트 토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약 100여 점의 세계 각국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특히 특별전시로 아트센터 나비의 특별전이 7월28일까지 복합 5관에서 열리고, 이번 심포지엄의 특별주제인 ‘푸드 앤 테크(Food&Tech)’와 연계해 액트 페스티벌(ACT Festival)도 동시 개최된다.
또한, 개·폐막식 하이라이트로 이이남 작가와 로보링크, 월드뮤직그룹 공명, 아

트센터 나비가 함께하는 드론 개막 퍼포먼스와 전통문화관에서 정자영 작가의 폐막 퍼포먼스가 있을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어린이대상 키즈 미디어아트 캠프 운영 ▲전통음식 및 공예 체험을 통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투어 프로그램 등도 마련된다.
2019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 공모에는 59개국 총 1200여 건이 접수되는 등 국내외 미디어 아티스트, 과학자, 교육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